

# 학교 안전사고 급증

광주·전남 작년 2,684건 ... 휴식·체육시간 많아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장소는 운동장이 50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교실(322건), 체육관(211건), 계단(184건), 복도(134건) 순이었다. 부상 부위는 가벼운 골절(532건)이 가장 많았고, 사망사고도 2건이 있었다.

사고 원인은 학생의 부주의가 1천226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평소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도 1천129건으로 2007년(903건)보다 25% 증가했다. 보상금액도 2007년 9천900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사고 시간대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휴식시간(504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해 보상금(공제급여)이 지급된 학교 안전사고는 총 1천555건으로 2007년(1천430건)보다 125건(8%)이 증가해 5억 7천만원의 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564건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538건), 고등학교(394건), 유치원(46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휴식시간(629건)이나 체육수업(388건)중에 사고가 많았고, 이어 특별 등·과외활동(236건)이 뒤를 이었다.

# “나무 값이 금값”

광주 지자체 숲 가꾸기 경쟁에 품귀 현상

## 조경수 노송 5천만원 ... 묘목업계 “없어서 못 팔아”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나무심기에 나서면서 나무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느티나무, 이팝나무, 백일홍 등 가로수로 사용되는 수종은 국내 물량이 떨어져 중국산 수입에 나서는 등 관련 업체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주시는 울퉁내 송암로 가로숲 정비사업 등 ‘푸른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9건 18억2천400만 원어치의 나무를 발주했다.

북구청은 7천500만 원을 들여 상록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 등 최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담장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사업 4~5건에 모두 3억 여 원을 투입기로 했다. 다른 구청들도 경쟁적으로 나무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가로수는 물론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에 식재되는 조경수까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지름 15~20cm의 느티나무의 경우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50만원까지 폭등했으며, 지름 12cm 이팝나무 역시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조경수로 쓰이는 노송의 경우 지름 30cm 이상은 특수목으로 취급되며 50cm 이상은 4천만~5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관련 업체들은 광주·전남지역에 묘목이 바닥나자 대구나 대전까지 출장을 나가 A급 나무 선점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나무를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광주지회 이근영 사무국장(37)은 “산이나 대지에 조림을 해 둔 묘목업자들이 더 이상 팔 나무가 없어 전화를 안 받을 정도”라며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 나무 선점과 일할 등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지회 가입 업체는 지난해 65곳에서 올해 75곳으로 10곳이 늘어났다.

/윤현석기자 chadold@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관련법 지역공청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지역 언론 죽이는 언론악법 폐기하라”

## 광주·전남 언론단체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는 20일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는 언론악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미디어관련법 지역공청회가 열린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 악법이 통과돼 민영 미디어법, 대기업 방송진출이 허용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방송과 지역 신문시장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공청회 개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죽이는 언론악법의 일방적인 개정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과 족벌신문이 방송을 하게되면 기업과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기능은 사라지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34분 달돋이 02시 45분 달질 16시 05분

**더위 식히는 비**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으며 오후들어 점차 개겠다.

| 구분  | 날씨    | 기온     |
|-----|-------|--------|
| 광주  | 흐리고 비 | 17/21℃ |
| 목포  | 흐리고 비 | 17/19℃ |
| 여수  | 흐리고 비 | 17/20℃ |
| 완도  | 흐리고 비 | 17/21℃ |
| 구례  | 흐리고 비 | 16/22℃ |
| 해남  | 흐리고 비 | 17/21℃ |
| 장흥  | 흐리고 비 | 17/21℃ |
| 고흥  | 흐리고 비 | 16/20℃ |
| 순천  | 흐리고 비 | 16/22℃ |
| 영광  | 흐리고 비 | 17/20℃ |
| 진도  | 흐리고 비 | 18/21℃ |
| 전주  | 흐리고 비 | 17/22℃ |
| 남원  | 흐리고 비 | 16/21℃ |
| 옥산도 | 흐리고 비 | 15/18℃ |

|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북서 | 1.0~2.0m | 목포 11:19 | 04:46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  | 1.5~2.5m | 여수 23:55 | 16:57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  | 1.5~2.5m | 여수 06:25 | 00:15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  | 2.0~3.0m | 19:00    | 12:34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2(금) | 23(토) | 24(일) | 25(월) | 26(화) | 27(수)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15/24 | 14/24 | 13/26 | 14/28 | 14/26 | 13/28 |

# 100mm 비

20일 밤부터 광주·전남에 내린 비는 21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강풍과 함께 최고 10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광주·전남은 천둥·번개와 물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비는 오후 늦게 갈라지고 20일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30~100mm.

이런 비는 오전에 집중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여수 등 전남 지역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여수와 완도에 강풍주의보를,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 ‘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26일 개소

한국학 호남권 아카이브가 될 ‘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가 오는 2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2008년 12월부터 매년 28억원씩 10년간 총 2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가운데 호남권역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대는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제주대 박물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해 12월 호남권역센터로 선정됐다. 조선대 법학전문도서관 5층에 문을 연 한국학자료센터는 고문서 작업실, 보관 및 연구 시설을 갖추고 고문서, 일기, 문집, 서화, 금석문, 고지도 등 광주·전남 내륙지역에 산재한 미발굴 한국학 자료를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센터는 특히 호남지역에 산재한 전통시대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연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중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다짐과 동시에 호남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널리 알리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